

위대한 유산

“나중에 죽어 베드로 할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불행해 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자녀들에게 힘과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부모가 어떤 기억의 유산을 남기고 가느냐에 따라 평생 간직하며 힘이 되는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천국에 갑니다. 그 때 우리의 생으로 남겨놓은 큰 유산, 무엇이 있을까요?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유산 나누기’에 참여하는 방법

- 첫째,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기실 수 있고 고인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둘째, 기부보험인 ‘천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셋째, 사후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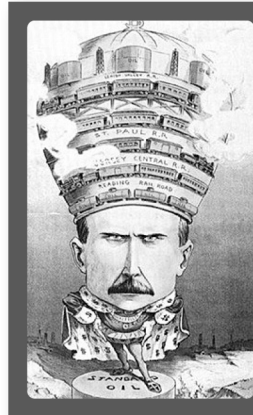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모금홍보부

위대한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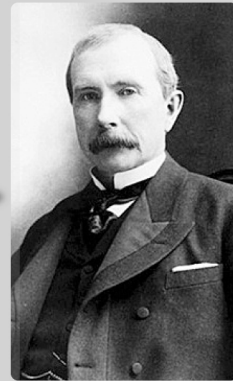
제 2의 인생

존 데이비슨 록펠러 John Davison Rockefeller (1839~1937)

43살에 정유회사를 세워 불과 십년만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된 사나이. 그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 빌 게이츠 재산의 3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석유 90%를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노동자를 심하게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록펠러는 55세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으로 인한 기관지 천식과 위궤양 증세로 중태에 빠진 것입니다. 의사는 “일년을 넘기면 기적”이라며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부모님은 부자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라고 말하자 록펠러는 웃으면서 “부모는 가난하게 사는 농부였지만 나에게 부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주었지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믿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중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재계에서 물려나 자선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사업에 6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그 후에도 수십억 달러를 출연해 만든 록펠러 연구소나 록펠러 재단 등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페니실린이나 녹색혁명 프로젝트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건지는 등 크나큰 사회적 공헌을 했습니다.

한번은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 기부왕이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록펠러는 그 후로 43년 동안 ‘제2의 인생’을 살고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그는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들입니다. 영혼의 유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녀에게 영혼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 할아버지와 이야기 할 때 ‘나도 뭐 하나 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유산 나누기’ |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모금홍보부

- 1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기실 수 있고 고인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 전부나 일부를 유산으로 기부하는 새로운 기부문화입니다. 개인의 부는 자신만의 노력이 아닌 사회의 도움을 통해 얻게 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위대한 유산 나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 2 기부보험인 ‘천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보험의 일종으로 평상시 정기적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금의 수혜자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지정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 대신 본부가 지원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 3 사후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장기기증을 희망하신 당신의 고귀한 뜻은 이 땅에 남기고 갈 위대한 생명의 유산입니다.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1599-생명살이(3042)

미리크리스마스

나눔으로 미리 꾸며보는
해피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제법 추워진 날씨에 생각나는 것들
뜨거운 커피, 두툼한 머플러, 재즈연주, 첫 눈...
그리고... 크리스마스 !!!

그리운 크리스마스를 나눔으로
미리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백혈병·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산타가 되는 시간이에요.
나눔을 통해 미리미리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보시라구요.
미리 크리스마스라 하지만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담요와

완치의 희망을 적어나갈 2012년 달력,

그리고 응원메시지를 적어넣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박스에 담아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 환아

1,400명에게 전달합니다.

듣기만 해도 맘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
나눔으로 그 기분을 미리 느껴보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난
2006년부터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 12/12~24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 환아 1,400여명에게 산타선물을 전달하고
- 2011년 한해동안 본부 환아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은 환아 90명에게
산타 선물을 전하며
- 12/20(화),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 환아들을 위한 산타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모금 기간은 11/1(화)~12/20(화)이구요,
선물1세트에 3만원입니다.

(1인당 2~3세트 이상도 가능하합니다)

전화나 후원계좌로 신청받습니다.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백혈병·난치병
환아지원 사업담당 02.727.2293

2011년 환우지원사업 지원 현황 (9/29~10/31 기준집계)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강* (여.만10세)	골육종	국립암센터	800만원
김**(여.만07세)	뇌성마비	서울대학병원	1,000만원
김**(여.만51세)	유방암	국립암센터	200만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백혈병·난치병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사업 및 정서적 지지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들이 안내

● 후원 (우리)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93

본부, 태국·터키 5만 달러 지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최근 홍수피해와 강진
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태국과 터키 주
민들의 긴급구호를 위해 2만 5천 달러씩 모두
5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양국
이재민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펼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긴급구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85-119119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하루 100원 모으기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하나은행 850-910006-0910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51,148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1년 11월 3일 현재)

대홍수사태를 겪고 있는 태국은 수도 방콕을
포함, 국토의 50% 이상이 물에 잠기는 피해
를 입었으며 터키는 10/23(일), 이란 국경의
터키 동남부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으로 현재 600여명이 사망하고 4,1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5회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잔치

- 일시·장소 12/3(토) 10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내용 기념 봉헌 미사, 우수봉사자(단체) 시상
- 신청문의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02.727.223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움

- 주제 새로운 시대·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가톨릭 사회복지 '성찰과 전망'
- 대상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수탁시설,
등록단체 종사자 등 약 150명
- 일시·장소 12/16(금), 15시~17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사랑의 김장 행사 '제8회 나눔은 희망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서울대교구 본당 내 취약계층 및 재가복지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이번 행사는 12/4(일) 서초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1가구 1계좌 참여 : 연말 김장 나눔 30,000원
우리은행 1005-900-914598
(예금주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76.8810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가원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사형폐지소위원회 주최로 사·노래 콘서트를 다양한 분야의 이

기 손님, 노래 손님과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공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장소 11/30(수) 19시,
홍대입구역 가톨릭청년회관(CYC) 1층
- 내용 사형제도폐지 가원미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님 주례)
특별 강연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 문의 02.921.5093

월례미사에 초대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가톨릭회관에서 미사를 봉헌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사형수, 출소자 및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미사입니다.

- 일시·장소 12/5(월) 10시20분, 가톨릭회관 3층

개인상담 및 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존중'이라는 사망아래 고통받는 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운영시작일 2011년 12월부터
상담신청 및 문의 02.727.2250

희망을 여는
개인상담

눈앞의 모든 것들이 캄캄한 암흑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희망을 나누는
자조모임

자살유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통해 소중한 아를 잃은 슬픔을 함께 끌어안고, 서로를 지지하며,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1회 50분)
- 대상 : 본인, 가족, 친구, 이웃의 자살을 경험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기타 심리 정서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듭니다!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 | | | |
|---|---|---|---|
| ● 송리나 에스텔
(2010.07.05생 父 송근우/ 母 박유나),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김민준 베네딕도
(2010.08.06생 父 김승태/ 母 임옥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민서연 메리워드
(2010.11.08생 代母 김선아),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김민주
(2011.07.26생 父 김**/ 母 노**),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박준수 제미노
(2007.02.04생 父 박진철/ 母 김현아),
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임선율 가브리엘
(2010.10.01생 父 임상락/ 母 홍주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이준수 사도요한
(2008.10.11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 김시은
(2010.10.27생 父 김영후/ 母 서현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박준희 소화테레사
(2010.09.22생 父 박진철/ 母 김현아),
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이지운
(2010.10.11생 父 이광제/ 母 정지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최인영 미카엘라
(2010.09.17생 父 최용원/ 母 김상경),
7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지하운 루치아
(2010.09.26생 父 지원호/ 母 강명주),
576,100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 ● 김건우 프란치스코
(2010.10.04생 父 김기용/ 母 황혜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정혜윤
(2010.09.13생 父 정우준/ 母 이호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이지연 에스텔
(2011.07.13생 父 이윤진/ 母 우혜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김민준 루가
(2010.10.23생 父 김유진/ 母 강선모),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김재이 클라라
(2007.11.12생 父 김승태/ 母 임옥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안수빈 리파엘라
(2010.10.12생 父 안성원/ 母 박나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이규빈
(2010.11.05생 父 이한진/ 母 손유미),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 안서윤
(2010.10.22생 父 안동성/ 母 류영혜),
67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